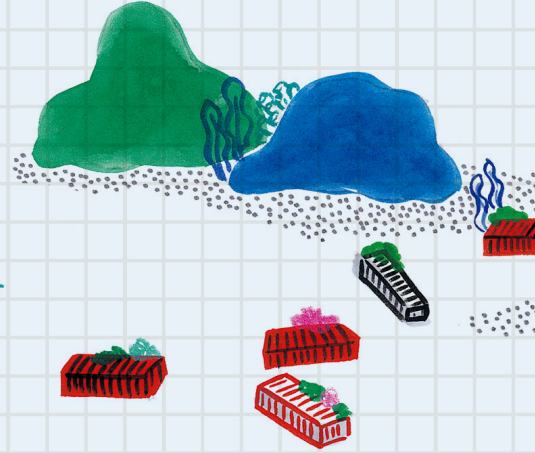




늙은 배 이야기

글 방글, 그림 임덕란 / 책고래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늙은 배 이야기

바다를 좋아하는 어느 배의 이야기입니다. 크고 튼튼해서 패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부터 바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노년까지,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듯 담담하게 《늙은 배 이야기》는 배의 일생을 그려 내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서사를 끌고 가는 글과 달리 그림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듯 경쾌한 리듬감을 줍니다.

글을 먼저 읽었을 때와 그림을 먼저 보았을 때의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불균형한 어울림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숨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책장을 덮으면, 가슴 한편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울림이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배이지만, 결국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만 들어도 떠올려지는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독후 이해 활동

- ㉠ 줄거리를 생각하며 순서에 맞게 번호를 쓰고, 앞뒤 문장이 연결되도록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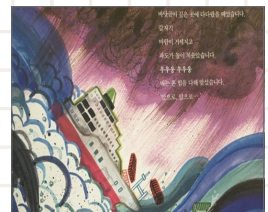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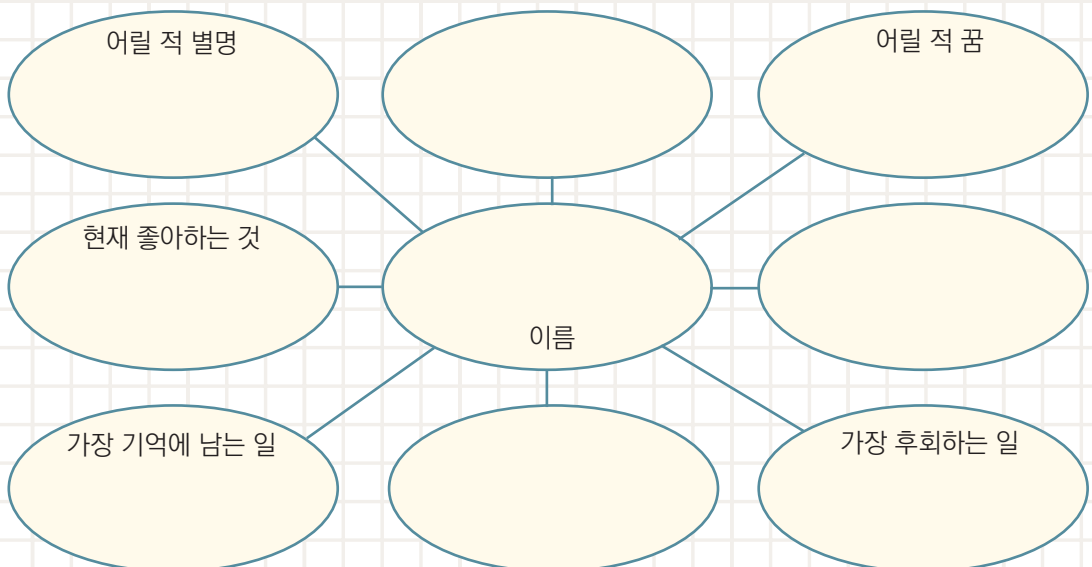
어느 항구에 ()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배는 아주 크고 ()
 배는 () 바닷길에 오갔습니다. 배는 ()가 좋았습니다.
 온 바다를 () 누비는 상상을 하며 힘껏 뱃고동을 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흘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
 이 파도를 따라 밀려왔습니다. 배는 () 마주한 것처럼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이 치솟았습니다. 배는 온 힘을 다해 ()
 ()는 그렇게 깊이깊이 가라앉아서야 ()

보기

운항 시간 위풍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처음 배
 마음껏 높은 배 실 수 있었습니다
 바람 바다 두려움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높은 배 이야기]는 크고 튼튼해서 패기에 넘치던 젊은 시절부터, 바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노년을 지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음에 제시된 문항을 참고하여 기록해 보세요.



Q 바다 깊이 가라앉은 늙은 배는 세월호를 생각나게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하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 활동'을 합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하거나 추모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따라 배를 만들어 보면서 세월호 추모에 동참해 보세요.

준비물 : 직사각형의 노란 색종이, 색연필이나 사인펜

1. 순서대로 따라 접으세요.
2.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위로의 말'이나 '기억할 수 있는 말'을 적어보세요.

